

2012 도정백서

# 제1장 총론

제1장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2012년도 도정 운영방향

제3절 2012년도 도정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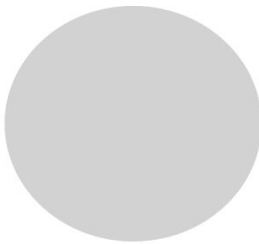


2012 도정백서

# 제1절 일반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1. 전라남도 역사
2. 위치와 자연환경
3. 인구 및 세대
4. 행정기구
5. 정 원
6. 행정구역
7. 재정규모





# 제1절 일반 현황

## 1. 전라남도 역사

### 가. 선사시대

우리 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몽고와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이동해 왔는데, 그중 일부가 해로를 따라 기후와 풍토가 좋은 전남지역에 정착하였다.

영산강, 보성강, 섬진강 유역에서 구석기시대 중기와 후기의 유물로 판단되는 주먹도끼, 긁개, 다면석기, 찍개 등이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어, 후기 구석기인들이 곳곳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영산강, 보성강유역의 층적평야를 기반으로 성읍국가(城邑國家)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때의 유적인 고인돌, 고분, 독무덤(옹관묘)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고, 특히 고인돌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1,400여기가 전남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아울러 마한 54개국 중 많은 국가가 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삼국시대

4세기말 근초고왕때에 백제에 통합되어 무진주(武珍州, 現광주)를 비롯 1주(州) 14군(郡) 44현(縣)이 설치되었으며, 5방(方)중 남방구지하성(南方久知下城)에 속하였다.

660년(의자왕 20년) 5월에 나당(羅·唐)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5개 도독부를 설치하였는데 그중 사양(沙洋), 대방(帶方), 분차(分嗟) 3주가 본도에 위치했다. 당군이 물러간 후 신라는 옛 백제 지역에 웅천주, 완산주, 무진주를 설치했으며, 전남지역은 무진주 관할 1주(州) 15

군(郡) 43현(縣)으로 개편되었다.

892년(진성여왕 6년)에 견훤(甄萱)이 무진주를 본거지로 기병하여 부근의 주·군(州·郡)을 정복 세력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도는 900년에 그 통치하에 들어갔으며, 900년 견훤은 완산(現 전주)으로 도읍을 옮겨 후백제라 칭했다.

901년(효공왕 5년)에 궁예(弓裔)가 후고구려(摩震→泰封)를 세우고, 903년 왕건을 보내 금성군 등 10여개 현을 공략하니 나주, 영암 등 서남해안지역이 후고구려 세력권에 들어갔으며, 936년(고려 태조 19년) 후백제의 멸망으로 본도 전역이 고려에 복속되었다.

#### 다. 고려시대

995년(성종 14년) 9월에 전국이 10개 도(道)로 개편되면서 본도는 해양도(海陽道)라 칭하였고 14주(州) 62현(縣)이 설치되었다.

1018년(현종 9년)에 전국을 5도(道) 양계(兩界)로 크게 나누면서 해양도를 강남도(江南道 : 전북)와 합하여 전라도(全羅道)라 개칭하고 치소를 전주에 두었으며, 전남지역은 1목(나주) 1도호부(장흥) 4군(영광, 영암, 보성, 송평) 4현(해양, 진도, 능성, 탐라)을 두고 나머지 고을은 이에 모두 내속시켰다. 그러나 그 후 몇 차례 개편을 거치면서 21개 지역에 다시 현령이나 감무가 파견된다.

#### 라. 조선시대

1413년(태종 13년) 8도제가 실시되고 전라도는 전주 감영을 중심으로 56관(官)을 지니게 되는데, 전남지역에는 다음과 같이 25관(官)이 있었다. 목(광주, 나주), 도호부(담양, 장흥, 순천, 장성), 군(영암, 영광, 진도, 낙안, 보성), 현(창평, 능성), 소현(곡성, 옥과, 남평, 광양, 구례, 홍양, 동북, 화순, 함평, 무안, 강진, 해남)

1895년 5월 8도제를 폐지 23부(府)제를 실시하고 부·목·군·현을 군(郡)으로 일원화 하였다. 이때 전라도에는 4개부를 두었으며 그 관할군과 전남지역 각군의 소속은 다음과 같다. 전주부(20군중 장성, 영광), 남원부(15군중 구례, 곡성, 순천, 광양, 담양, 옥과, 창평), 나주부(16군 모두 전남지역, 나주, 해남, 진도, 강진, 장흥, 홍양, 보성, 영암, 무안, 함평, 능주, 화순, 동북, 광주, 남평, 낙안, 이듬해 완도, 돌산, 지도, 증설), 제주부(3군)

1896년 2월 완도군, 돌산군, 지도군을 신설하여 여러 군 관할의 섬들을 3군으로 통합 소속시켰으며, 동년 8월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실시함에 따라 옛 전라도가 남·북도로 나뉘어 전라남도는 광주에 소재지를 두고 1목(제주) 32군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이때 구례군은 전북에 무장, 흥덕, 고창 3군은 전남에 소속되었다.

1897년 5월 좌수영지역에 여수군을 신설하고 순천군의 4개면을 이속시켰으며, 동년 9월 흥덕, 고창, 무장이 전북으로 구례가 전남으로 편입되었고, 1906년 9월 제주목이 군(郡)이 되고, 비입지(飛入地)와 두입지(斗入地)를 정리하였다.

1908년 10월 옥과군이 창평군에 화순군이 능주군에 낙안군이 순천군과 보성군에, 담양군 일부가 창평군에 각각 편입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전남은 현재 제주도 지역의 3개군을 포함 모두 1부 27군이었다.

## 마. 일제시대

1910년 10월 1일 지방관제를 반포하고 도에 장관을 두었으며, 무안군은 목포부로 개칭하였다.

1914년 4월 1일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져 지도, 남평,

창평, 돌산, 대정, 정의군이 없어지고 대부분의 군에서도 편입과 분속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면도 크게 통폐합되었다. 이때 전남은 1부 22군 273면2,996리동이였다. 이후로도 군과 군간, 전라북도나 경상남도와의 많은 관할구역 변경이 있었다.

1915년 5월 제주군을 제주도(島)로 개칭 도사(島司)를 두고 행정, 경찰 장악과 도령(島令) 반포권을 부여했다.

1919년 8월 20일 도장관을 폐지하고 도지사를 두었으며, 1931년 광주, 나주, 순천, 여수, 제주가 읍으로 승격했는데 이후 1939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보성, 장흥, 담양, 장성, 완도, 송정, 별교, 강진, 영산포가 읍으로 승격되었다.

1935년 10월 광주읍을 부(府)로 승격하고 광주군은 광산군으로 개칭하여 2부 21군 1도(島) 10읍 243면 310 통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 바. 대한민국

### (1) 8-15 광복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일본제도인 정(町)명칭을 폐지하여 동으로 개칭하고 1946년 8월에 제주도를 도(道)로 승격분리(남·북군 신설)시키고 1949년 8월 15일 부(府)를 시(市)로 개정하여(지방자치법 제 4조) 여수·순천의 2읍을 각각 시로 승격시키는 한편 여수군은 여천군으로, 순천군은 승주군으로 개칭했으며, 광양면을 읍으로 승격시켜 4시 21군이 되었다.

1955년 7월 1일 광산군의 서방(瑞坊), 극락(極樂), 효지(孝地)등의 3개 면과 석곡면의 일부 5개리를 광주시에, 석곡면의 일부 3개리를 담양군에 각각 편입시켰으며, 1957년 11월 6일 광산군의 지산(芝山)·대촌(大村)·서창(西倉)면 일부(8개리)와 담양군 남면 일부 (5개리)를 광주시에 각각 편



입시켰는데 당시의 행정구역은 4시 21군 13읍 218면 2,912동리이었다.

## (2)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2년 11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1175호('63. 1. 1발효)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영광군 위도면(蝸島面)을 전북 무안군에 편입하고, 무안군 이로면을 폐지하며, 동면 산정(山亭)·상(上)·용당(龍塘)·달(達) 및 눌도(訥島)의 5개리를 목포시로, 대양(大陽)·석현(石峴) 및 옥암(玉岩)의 3개리를 삼향(三鄉)면으로 각각 편입하였고, 무안군 흑산면 우이도(牛耳島)리를 도초(都草)면으로, 진도군 조도(鳥島)면 마진도(馬津島)리를 무안군 장산(長山)면으로 각각 편입 변경하였다.

광주시 관할 서호(瑞湖)·방호(芳湖)·신호(新湖)의 3개동을 떼어서 광산군 서창(西倉)면을 증설하고, 1968년 12월 31일자 법률 제2059호로 무안군을 신안(도서 11면), 무안(육지 8면)으로 분군시켰다.

## (3) 10월 유신 이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6544호로 광주시에 동구·서구 2개 구청을 증설 시켰으며, 1976년 9월 1일 전라남도 조례 제796호로 여천군 삼일면 평여리에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를 설치하여 1977년 12월말 본도의 행정구역은 4시 2구 22군 1출장소(17읍 213면 36출장소 2,913동리)로 되었다.

## (4) 1980년 이후

1979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6930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980년 4월 1일 광주시 석곡출장소와 지산출장소를 폐합하여 북구청을 신설하였으며,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81. 4. 13공포)로 나주군 나주읍 일원과 영산포읍 일원을 통합하여 금성시를 설치(5시 22군 1출장소 29읍 199면)하였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5(85. 12. 28 공포)에 의하여 여천출장소(麗川出張所)를 여천시(麗川市)로, 금성시(錦城市)를 나주시(羅州市)로 명칭을 변경시켰으며, 1986년 11월 1일 법률 제3808호(1986. 10. 23 공포)에 의하여 기존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 본도와 분리되었고, 광산군 송정읍이 송정시로 승격되어 본도의 행정구역은 6시 22군, 1출장소(29읍 208면 96동 33읍면 출장소 6,491동리)로 변경되었다.

1988년 1월 1일 법률 제3963호(1987. 11. 28 공포)로 송정시와 광산군 전역이 광주직할시로 편입되었다.

#### (5) 1990년 이후

1990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13046호(1990. 7. 9 공포)에 의해 보성군 별교읍 장도리 일부를 고흥군 동강면으로, 해남군 옥천면 봉황리 일부를 강진군 도암면으로,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일부를 진도군 진도읍으로 각각 편입시켰다.

1995년 1월 1일 법령 제4774호(1994. 8. 3 공포)에 의해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하여 순천시로, 나주시와 나주군을 통합하여 나주시로, 법령 제4801호(1994. 12. 22 공포)에 의해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통합, 광양시로 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였다.

1998년 4월 1일 법령 제5457호(1997. 12. 17 공포)로 여수시와 여천시·여천군을 통합하여 여수시를 설치함으로써 5시 17군의 행정구역을 이루었다.

2005년 11월 11일 전라남도 도청소재지를 109년만에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에서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로 이전 하였다.

추진  
부서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전영재, 행정담당 김경호, 담당자 양국진

## 2. 위치와 자연환경

### 가. 위 치

전남은 동아시아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양면이 바다에 접해 있으며, 동쪽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경계로 경상남도과 접하고 서쪽은 황해를 건너 중국과 대하며 남쪽은 제주도와 마주 대하고, 북쪽은 전라북도과 접하고 있다.

전남의 동과 북의 울타리를 살펴보면, 동쪽은 소백산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들을 분수령으로 하여 경상남도과 확연히 구분되고, 북쪽은 비교적 낮은 노령산맥의 구릉성 저산지에 의해 전라북도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동쪽과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북쪽인 전북과는 비교적 낮은 분수령과 고개에 의해 빈번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호남권이라는 동질문화권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이어져 내려왔다.

이와 같이, 북쪽은 동쪽에 비해 자연적 장애가 적어 반도의 북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어 왔기에 자연환경의 유사점과 더불어 인문 또는 문화환경의 유사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전북과는 물론 충남과도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동으로는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이 많은 접경지대를 가지면서도 소백의 거봉들인 민주지산(1,242m), 대덕산(1,290m), 덕유산(1,614m), 백운산(전북소재 1,279m), 지리산일대의 노고단(1,507m), 선약봉(1,751m), 백운산(전남 1,218m) 등의 1,000m이상의 고봉들이 자연적 장벽이 되어 왔으며, 육십령(734m), 팔량봉(580m), 섬진강 하곡 등의 좁은 통로를 통하여 연결되어 왔다.

〈표 1-1〉 전라남도 위치

도 청 소재지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km)
	단	지명	점		
			동경	북위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1	동단 서단 남단 북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작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완도군 소안면 장수리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27° 54' 28.8" 125° 05' 00" 126° 38' 28.0" 126° 49' 12.5"	34° 24' 47.0" 34° 06' 45" 33° 54' 57.5" 35° 29' 00.0"	동서간 · 극점간 : 262.8 · 육지부 : 145.3 남북간 · 극점간 : 175.9 · 육지부 : 136.4

## 나. 지형과 지세

전 국토의 12%인 12,046km<sup>2</sup>의 면적을 가진 전남은 그 지형적 특색이 동은 높고 서는 낮은 동고서저의 형태를 나타내고, 북은 높고 남은 낮아 북고남저의 형태로 한국지형의 일반적 특색과 비슷하다.

다만 동쪽이 북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산성을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특색과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동서해안은 모두 침강량(沈降量)이 많은 해안으로 만과 반도, 좁은 해협, 그리고 무수히 많은 도서가 불규칙하게 분산되어 있어 이른바 한국식 해안이라는 별칭이 있는 리아스(rias)식 해안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도서는 1,965개(무인도 포함)로 전국의 62.1%를 차지하여 세계적인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도서는 전부 육지의 침강 결과로 생긴 육도로서 대부분이 산지 또는 구릉으로 되어 평지는 극히 적은 편이다.

다도해 연안에는 침강해안의 특징으로서 좁은 해협에 의하여 육지와 연결되는 여수고흥·장흥·해남 등의 4대 반도가 돌출하고 있고 그 사이에 수심이 얕은 광양·순천·보성·강진 등의 만이 깊숙이 만입되어 있으며, 그 외해(外海)에도 많은 도서들이 널려 있다.

전남을 흐르는 하천은 크게 3분되는데 노령의 줄기에서 발원하는 영산강수계는 서남부 및 서북부의 광대한 평야를 유역에 형성시켜 비옥한 농토를 제공하고 있고 목포만으로 유입한다.

대략 광주의 무등산을 분수령으로 동부의 섬진강 수계와 구분되는 영산강은 장성에서 흘러온 황룡강과 담양과 광주에서 흘러온 극락강, 그리고 화순과 나주를 흘러가는 지석강 등 3개의 지류에 의해 형성되어 있으며, 전남의 대표적 평야인 나주평야의 젓줄이 되어 노년기의 느린 사행(蛇行)으로 영산호에 유입되고 있다.

한편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른 섬진강은 전북에서 발원하여 전남북의 동부 산악지대를 흘러내리고 있는데, 영산강에 비하면 그 흐름이 장년기적 특색을 보이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사행률이 적으며 경사도가 높아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하류를 흐르는 선행(旋行)과 횡곡(橫谷)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전북에서 흘러온 적성강, 요천강의 지류를 합하고 전남에서는 남에서 북으로 흘러가는 보성강과 압록에서 합류하는데 곡성·구례·화순·보성·순천·광양 등지의 동부지역에 많은 분지(盆地)를 이루어 생활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전남에서 영산강 유역과 섬진강 유역을 제외하면 극히 좁은 남부 중앙부가 남게 되는데 여기가 탐진강 유역이다.

장흥군 일대와 강진군의 상당부분이 이 유역에 해당하는데 동서 양강의 유역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흐름도 짧지만 동서의 점이지대적 성격을 보여 영산강 유역의 특징인 평야도 형성하고 섬진강 유역의 특징인 분지와 산지를 함께 갖고 있다.

탐진강은 한마디로 영산강과 섬진강의 특징들을 고루 갖춘 중간형태의 하천이라 볼 수 있다.

전남의 평야는 영산강 유역 일대의 전남평야, 일명 나주평야로 불리

어지는 넓은 평탄평야로서 나주를 중심으로 학교, 함평, 광주, 담양, 능주, 장성의 넓은 지역에 걸쳐 펼쳐지며 영암·무안 등지의 평야부까지 연장되어 전북의 호남평야와 더불어 우리나라 굴지의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영산강 유역에 형성된 평야이지만 중적층의 발달이 비교적 적고 대부분이 침식에 의해 형성된 평야로서 전북의 호남평야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서부 해안평야는 영암·함평 일대의 서해안평야로 노령산맥의 여맥들에 의해 영산강유역의 전남평야와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서부평야는 전북의 호남평야와 서북 해안을 따라 연결되어 있다.

남해안 지역에는 해남·강진·장흥·보성·순천·광양 등지에 비교적 좁은 해안평야가 불규칙적으로 분포되어 무수한 저산성 구릉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마치 분지형의 모습을 나타내는 좁은 평야도 나타나는데 주로 탐진강 유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 다. 기 후

전남의 기후는 온난성 외에도 여름의 고온과 겨울의 저온의 기온차가 큰 대륙성 기후이고, 여름의 우기와 겨울의 건기가 나타나는 계절풍 기후이기도 하다.

또한 전남의 기후는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기후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지리적 위치로 보아 한반도의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에 면한 지역이 넓고 해안선이 길어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백산맥, 노령산맥 등의 산악지대와 이들 산지로부터 발원한 하천들이 형성한 내륙의 분지지역들은 해안 및 도서지방과는 기후

적 차이를 나타내어 대륙성기후의 특성을 나타낸다.

연평균 기온을 보면 남해안 및 서해안 지방이 약 13~14℃이고 연간 강우량은 약 1,289mm정도다. 겨울에는 지형적 요인에 의하여 소백산맥의 서쪽 비탈진 경사면에 눈이 많이 내린다.

남서해안에는 난류인 제주해류가 들어오지만 그 세력이 미약하고 발해방면에서 남하하는 한냉한 연안류가 남쪽의 다도해까지 내려와 남서해안 일대에 과우 현상이나 짙은 안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전영재, 행정담당 김경호, 담당자 양국진

### 3. 인구 및 세대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인구는 1,933,220명으로 전국의 3.7%를 차지하며, 그중 남자가 966,895명(50%), 여자가 966,325명(5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570명이 많으며, 인구는 자녀교육, 취업, 이농현상 등으로 인하여 10년 전에 비해 126,401명이 감소하였다. 세대당 인구는 2.4명이며, 10년 전에 비해 77,595세대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핵가족화 및 1인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1,909,618명(98.8%), 외국인은 23,602명(1.2%)이 거주하고 있다.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세대 및 인구를 비교해 보면 시부는 413,139세대(51.1%), 1,059,780명(54.8%)이고, 군부는 395,543세대(48.9%), 873,440명(45.2%)이다. 또한 전년(2011년)과 비교 시 시부는 3,728세대(0.9%), 1,370명(0.1%)이 증가하였고, 군부는 97세대(△0.02%), 6,286명(△0.7%)이 감소하였다.

〈표 1-2〉 인구 및 세대(2012년말)

(단위 : 명, 세대)

구 분	인 구			세 대	
	계	남	여	세 대 수	세대당 인구
전 남	1,933,220	966,895	966,325	808,682	2.4명
전 국	5,1881,255	26,028,480	25,852,775	20,211,770	2.6명
전국대비	3.7%	3.7%	3.7%	4.0%	-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관 이기춘, 통계분석담당 정종연, 담당자 임수열



## 4. 행정기구

전라남도의 행정기구는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두고, 밑에 1실 8국 1본부가 있으며, 전라남도의회 소속의 의회사무처가 있다.

〈표 1-3〉 전라남도 기구표



1실은 기획조정실이고, 8국은 투자정책국, 경제산업국, 행정지원국, 관광문화국, 보건복지여성국, 농림식품국, 해양수산물국, 건설방재국이고 1본부는 소방본부가 있으며, 도지사 직속으로 대변인,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감사관, 종합민원실, 녹색성장정책실, 환경정책담당관, 녹색에너지담당관, F1대회지원담당관이 각각 있다.

과 단위 직제로는 3관 3실 6담당관 35과가 있고, 소속기관으로는 3원·1대학·12소방서, 1출장소, 8사업소가 있으며 3원 1대학은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전남도립대학교이다.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장 박준수, 조직관리담당 김희필, 담당자 정오진

## 5. 정 원

2012년 12월말 현재 전라남도 공무원 수는 도 3,947명, 시군 16,190명 등 총 20,137명이 있으며, 도의 경우 기관별로는 도 본청 1,163명, 농업기술원 174명, 공무원교육원 14명, 보건환경연구원 66명, 전남도립대학 84명, 도의회사무처 71명, 소방서 1,984명, 출장소 17명, 사업소 354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명 등이다.

직종별로 분류하면 도는 정무직 1명, 일반직 1,294명, 별정직 51명, 연구직 197명, 지도직 24명, 소방직 2,066명, 교원 69명, 기능직 245명, 시군은 정무직 22명, 일반직 13,214명, 별정직 108명, 연구직 80명, 지도직 568명, 기능직 2,198명으로 도·시군을 합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14,508명으로 전체공무원의 7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4〉 공무원 정원현황(직종별)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	일반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교원	기능
계	20,137	23	14,508	159	277	592	2,066	69	2,443
도	3,947	1	1,294	51	197	24	2,066	69	245
시·군	16,190	22	13,214	108	80	568			2,198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장 박준수, 조직관리담당 김희필, 담당자 정오진

## 6. 행정구역

〈표 1-5〉 전라남도 위치

시 대	연 대	연 혁
삼한시대		○ 마한 옛터로서 마한국 54개 부족국중 8개국에 위치하였음
삼국시대		○ 백제 근초고왕때 마한과 병합함으로써 백제에 속하게 됨
통일신라 시대	660년	○ 백제 의자왕 20년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로 신라 영토가 됨
	892년	○ 신라 진성왕 6년에 견훤이 무진주(현 광주)에 근거를 두고 부군의 주·군(州郡)을 정복함에 따라 통치하에 들어감
후백제 시대	901년	○ 견훤이 완산주(현 전주)로 이도(移都)하여 후백제라 칭하고 궁예가 효공왕 5년에 후고구려를 세워 국호를 태봉으로 칭하게 되면서 태봉과 후백제로 분할 점령됨
고려시대	995년	○ 성종14년 전국이 10도로 분할되면서 해양도라 칭함
	1018년	○ 현종 9년 전국을 5도 양계를 크게 나누면서 강남도(전북)와 합하여 전라도라 칭하고 접찰사를 전주에 둠
조선시대	1895. 5.26	○ 고종 32년 8도제를 23부제로 개편, 4부(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제주부)로 구분하여 관찰사를 둠
	1896. 8. 4	○ 고종 33년 8월 4일 23부가 13도로 개편, 노령이남을 분할하여 전라남도라 칭하고 광주군에 도청을 둠
	1897. 5.16	○ 좌수영이 여수군에 신설되어 순천군의 울촌, 여수, 삼일면을 편입
		○ 흥덕, 고창, 무장의 3군이 전라북도로 편입되고, 전라북도의 구례군이 전라남도로 편입됨
한일합방 이후	1910. 3. 1	○ 옥과군을 폐지하여 곡성군으로 하고, 낙악군이 순천군, 보성군으로 각각 폐합

시 대	연 대	연 혁
한일합방 이후	1935.10. 1	○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되고, 광주군을 광산군이라 개칭
	1946. 8. 1	○ 제주군이 도(道)로 승격 분리
정부 수립후	1949. 8.14	○ 여수읍, 순천읍이 각각 부로 승격되고, 여수군을 여천군으로 순천군을 승주군으로 개칭 ○ 광양군 광양면이 읍으로 승격
	1949. 8.15	○ 광주부, 목포부, 여수부, 순천부를 시로 개칭
	1955. 7. 1	○ 영광군 영광면, 해남군 해남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 ○ 광산군의 서방면, 극락면, 효지면 및 석곡면의 5개리가 광주시로 편입하고, 광산군 석곡면의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가 담양군 남면으로 편입
	1957.11. 6	○ 광산군의 대촌면, 지산면, 서창면(송대리 제외) 및 담양군 남면의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가 광주시로 편입
	1963. 1. 1	○ 영광군 위도면을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편입 ○ 무안군 이로면의 5개리가 목포시로, 무안군 이로면의 대양리, 석현리 및 옥암리가 동군 삼락면으로 각각 편입되고 이로면은 폐지  ○ 구례군의 구례면, 화순군의 화순면, 곡성군의 곡성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4시 21군 16읍 215면)
	1969. 1. 1	○ 무안군을 분군하여 신안군 신설(11개면)
	1973. 7. 1	○ 고흥군 도양면이 읍으로 승격(4시 22군 17읍 214면) ○ 광주시 구제 실시(동구, 서구)
	1975.10. 1	○ 장성군 북상면을 폐면하고 용곡리는 장성읍에 수성·오월·조양리는 북이면에 덕재·동현·쌍웅·신성리는 북하면에 편입(4시 22군 17읍 213면)
	1976. 9. 1	○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 설치(4시 22군 1출장소)

시 대	연 대	연 혁
정부 수립 후	1979. 5. 1	○ 곡성군의 곡성면, 고흥군의 고흥면, 영암군의 영암면, 무안군의 무안면, 진도군의 진도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 (4시 22군 1출장소 22읍 208면)
	1980. 4. 1	○ 광주시 복구 설치(3구)
	1980.12. 1	○ 여천군 돌산면, 삼일면, 장흥군의 관산면, 대덕면, 무안군의 일로면, 영광군 백수면, 완도군의 노화면, 익일면, 신안군의 지도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4시 22군 1출장소 31읍 199면)
	1981. 7. 1	○ 나주군 나주읍 일원과 영산포읍 일원을 통합하여 금성시 설치(5시 22군 1출장소 29읍 199면)
	1983. 2.15	○ 광양군 태금면, 고흥군 동강면, 강진군 신전면, 해남군 북일면, 무안군 운남면, 신안군 증도면, 신의면, 팔금면등 8개면 설치 (5시 22군 3구 29읍 207면)
	1985.10.1	○ 승주군 쌍암면을 승주읍으로 영광군 흥농면을 흥농읍으로 각각 승격(5시 3구 22군 1출장소 31읍 205면)
	1986.1.1	○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를 여천시로 승격 ○ 금성시를 나주시로 명칭 변경 ○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 설치 (6시 3구 22군 1출장소 30읍 204면)
	1986.4.1	○ 고흥군 점암면 양시출장소를 산내면으로, 장흥군 대덕읍 회진출장소를 회진면으로, 완도군 금일읍 금당출장소를 금당면으로, 완도군 노화읍 보길출장소를 보길면으로 각각 승격(6시 3구 22군 1출장소 30읍 208면)
	1986.11. 1	○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 (6시 22군 1출장소 29읍 208면 96동)
	1987. 1. 1	○ 목포시 이로동 일부와 대양동, 옥암동을 합하여 삼향동 설치(6시 22군 1출장소 29읍 208면 97동)

시 대	연 대	연 혁
정부 수립후	1988. 1. 1	○ 송정시 및 광산군 전역을 광주직할시로 편입
	1988. 3. 5	○ 여천군 돌산읍 죽포출장소 설치 ○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출장소 설치
	1989. 1. 1	○ 전라남도 광양출장소(광양군 골약면, 태금면)를 동광양시로 승격(행정동 7, 법정동 10)  ○ 신안군 흑산면 대둔도 출장소 설치, 신안군 압해면 고이도 출장소 설치
	1989. 4. 1	○ 강진군 대구면 마량출장소를 마량면으로 승격 ○ 완도군 금일면 생일출장소를 생일면으로 승격 ○ 고흥군 산내면을 영남면으로 개칭 (6시 21군 29읍 96동 34읍면 출장소)
	1990. 7. 1	○ 고흥군 봉래면 내도출장소가 동일면으로 승격(6시 21군 29읍 96동 33읍면출장소)
	1990.7.19	○ 고흥군 포두면 송산출장소 설치
	1991. 4. 1	○ 신안군 흑산면 홍도출장소 폐지
	1993. 1. 1	○ 보성군 득량면 예당출장소 설치
	1994. 7. 6	○ 목포시 이로동을 용해동과 상동으로 분동(28동→29동)
	1995. 1. 1	○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 순천시 설치 - 나주시와 나주군을 통합 나주시 설치 -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통합 광양시 설치(6시 18군)
	1995. 3. 1	○ 나주시 남평면이 남평읍으로 승격
	1998. 4. 1	○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을 통합 여수시 설치 (5시 17군 30읍 199면 81동)

시 대	연 대	연 혁
정부 수립후	1998.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주시 조례 제195호(1998. 9. 14 공포)로 향교동·금남동·남산동을 금남동으로, 성북동과 송현동을 성북동으로, 영산동·부덕동을 영산동으로, 이창동·가야동을 이창동으로 각각 통합</li> <li>○ 화순군 조례 제1563호(1998. 10. 1 공포)로 이양면 묵곡출장소와 도암면 용강출장소를 각각 폐지</li> </ul>
	1998.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천시 조례 제1473호(1998. 9. 21 공포)로 용수동·영옥동·행금동을 향동으로, 대평동·덕흥동·인안동을 도사동으로 각각 통합, 명칭 변경</li> </ul>
	1998.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흥군 조례 제1682호(1998. 9. 7 공포)로 금산면 오천출장소와 포두면 송산출장소를 폐지(2읍 14면 2출장소)</li> </ul>
	1998.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양시 조례 제339호(1998. 11. 5 공포)로 황금동과 성황동을 골약동으로, 금호동과 금당동을 금호동으로 각각 통합 (1읍 6면 5동)</li> </ul>
	1999.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수시 조례 제211호, 제212호(1999. 2. 18 공포)로 삼일동과 상암동을 삼일동으로 통합(1읍 6면 20동)</li> </ul>
	1999. 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천시 조례 제440호(1999. 8. 16 공포)로 해룡면 일부를 연향동에 연향동 일부를 해룡면에 각각 편입</li> </ul>
	1999.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주시 조례 제360호(1999. 9. 28 공포)로 나주시 산포면 일부를 남평읍에, 남평읍 일부를 산포면에, 왕곡면 일부를 세지면에 각각 편입</li> </ul>
	2000.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흥군 조례 제1784호(2000. 10. 17 공포)로 고흥군 과역면·두원면 일부를 점암면에, 점암면 일부를 과역면에 편입</li> </ul>
	2001.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암군 조례 제1717호(2001. 12. 28 공포)로 영암군 삼호면 서부출장소 설치(1읍 10면 1출장소)</li> </ul>

시 대	연 대	연 혁
정부 수립후	2003.9.20	○ 순천시 조례 제696호(2003. 9. 20공포)로 순천시 왕조동을 왕조1동과 왕조2동으로 분동 설치
	2003.4.30	○ 영암군 조례 제1762호(2003. 4. 30공포)로 영암군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승격
	2005.11.11	○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74호로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로 이전
	2006. 8. 7	○ 목포시 조례 제2322호(2006. 8. 7)로 목포시 용당1동과 산정2동을 용당1동, 북교동과 무안동과 남양동을 목원동, 유달동과 총무동을 유달동으로 통합 (26개동 → 22개동)
	2008.8.21	○ 대통령령 제20972호로 목포시 옥암동 6필지 1,907㎡를 무안군 삼향면으로 편입시키고,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40필지 18,401㎡를 목포시 옥암동으로 편입
	2010.12.20	○ 무안군 조례 제 1995호(2010.12.20)로 무안군 삼향면을 삼향읍으로 승격
	2011.12.26	○ 목포시 조례 제2715호(2011.12.26)로 목포시 옥암동, 부흥동 일부를 분리하여 부주동 신설
	2012..1.1	○ 신안군 조례 제1756호(2011.12.26)로 신안군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승격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윤승중, 행정담당 김경호, 담당자 양국진



## 7. 재정규모

2012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16조 4771억원(도 6조 2,939억원, 시군 10조 1,83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조 6,565억원, 특별회계가 1조 8,20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전남 재정자립도는 21.4%(도본청 14.6%, 시·군 17.2%)로서 전국의 최하위 수준이며, 2012년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9.7%가 증가하였으며, 재정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1-6〉 연도별 재정규모

(단위:억원)

구 분		2011		2012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합 계	계	129,615	150,121	136,796	164,771
	일반회계	115,141	133,198	120,303	146,565
	특별회계	14,474	16,923	16,492	18,205
도	계	52,344	58,980	53,503	62,939
	일반회계	45,113	51,262	46,589	55,607
	특별회계	7,231	7,718	6,913	7,331
시 군	계	77,271	91,141	83,293	101,832
	일반회계	70,028	81,936	73,713	90,958
	특별회계	7,243	9,205	9,579	10,87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노래영, 예산총괄담당 장경문, 담당자 이길환



2012 도정백서

# 제2절 2012년도 도정 운영방향

제2절  
2012년도  
도정  
운영방향

1. 도정의 여건
2. 2012년도 도정운영의 중점방향





# 제2절 2012년도 도정 운영방향

## 1. 도정의 여건

이명박 정부 5년째를 맞아 친서민 중도실용, 광역경제권, 남해안선벨트, 4대강 사업 등 각종 정부시책이 추진 중이거나 마무리 되고,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우리 도의 역점시책을 차기 정부에 접목·발전시키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적으로는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건설을 위해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앞서가는 미래산업 육성, 찾고싶은 관광문화 진흥, 찾아가는 도민복지 실현을 통한 잘사는 전남실현의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2012년도 도정운영의 중점방향

### 가. 국제행사 성공개최로 「더 큰 전남 건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세계인의 가슴에 벅찬 감동이 전달할 수 있도록 전시시설과 교통숙박시설을 완벽히 준비하고, 박람회장내 전라남도 전시관을 설치하여 세계 속에 전남을 알리는 한편, 국내외에 박람회 성공개최 분위의 조성을 위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장 사후활용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년째 개최되는 F1코리아그랑프리 대회는 내실있게 준비하여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와 연관 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FTA에 적극 대처하고 미래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2013년에 개최

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나. 기업유치 총력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강화**

전남만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기업 2천개 유치 총력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 및 지역특산 자원을 산업화하고 산학간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전남을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융·복합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경영안전 및 판로지원과 영세기업의 규모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다. 친환경생명산업 육성으로 생태전남 실현**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과 6차 산업화로 친환경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산림자원을 활용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바다자원의 산업화와 해양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산업을 기업화 규모화 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바다에서 희망을 찾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 수준의 교육여건 마련과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전남의 교육발전과 미래 인재양성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 **라. 동북아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양녹색·문화자원을 활용한 전남형 관광상품 개발과 숙박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국제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소득과 연계하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로 예향의 품격을 높여 나가면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 및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바. 성장거점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은 관광레저와 지역산업을 연계한 성장거점 지역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양만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혁신도시건설은 공공기관 조기 이전과 연관기업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자족형 명품도시를 건설해 나가고, 고속도로 및 국도·지방도 확충과 연륙·연도교 건설로 도내 1시간대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사.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조성**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으로 도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를 만들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에 행·재정적 지원,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계층이 희망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

## **아. 소통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참시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열린행정 구현과 공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조

직문화를 정착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조 구급의 현대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하다는 한편,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계기로 친절·질서·청결 실천으로 깨끗한 지역  
이미지와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2012 도정백서

# 제3절 2012년도 도정 주요성과

제3절  
2012년도  
도정  
주요성과

1. 2012년의 회고
2. 분야별 주요성과





# 제3절 2012년도 도정 주요성과

## 1. 2012년의 회고

2012년은 국제적으로 유럽발 재정위기와 국내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재난재해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성장기반을 다진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국제행사 성공개최로 더 큰 전남 건설, 기업유치 총력과 미래산업 육성기반 강화, 3농정책으로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 조성, 성정거점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조성, 소통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 실현 등 7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 2. 분야별 주요성과

### 가. 국제행사 성공개최로 「더 큰 전남」 건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820만명이 관람하고 104개국·10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였고, 기후변화·해양환경 보전 등의 주제 구현으로 바다가 인류에게 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 주었으며, 남해안을 해양관광 중심지로 부각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또한 3년 연속 16만명이 관람한 F1대회는 대회운영이 안정되었다는 평가와 190개국 TV 중계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2012국제농업박람회는 생명산업의 중요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전환 등 친환경 농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7개국 87개 정원조성 등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나. 기업유치 총력과 미래산업 육성기반 강화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와 미래산업 육성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민선 5기 공약인 기업 2,000개 유치를 위해서 부족한 산업용지의 조기공급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MOU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생물·신소재·해상풍력 등 전략산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섬·온화한 기후 등 전남만의 비교우위인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은퇴자를 위한 미니복합타운 건설과 중국 관광객 및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지역전략산업을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구축 및 산업유치를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한 5년 연속 노사상생협력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다. 3농정책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3농정책으로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전국의 농가 소득은 감소하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남은 소득은 10% 상승, 부채 17% 감소라는 결실을 거두었다. 전국 최고의 친환경 인증 점유율(농업 61%, 수산 99%, 축산 36%)과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바다자원의 규모화 및 해양인프라 대폭 확충으로 명실상부 친환경 청정먹거리 생산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농수축산물의 조직화를 통한 유통체계 선진화,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서울·경기지역 친환경 학교급식 시장 선점(쌀 48%, 과채류 51%)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농도(農道)로서 친환경 생명산업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정주여건개선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복마을 조성(124개) 및 한옥 1,561동을 건립하여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미래 농어촌 성공모델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옥 민박 및 한옥 건축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전통 한옥 대중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농어촌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어체험캠프를 개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 및 전남 미래형특성화 고교 설립과 인재육성기금 조성 등 장학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라.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 조성

남해안·서해안 및 지리산권 관광자원개발로 세계적 관광벨트 거점을 조성하고 있으며, 섬·슬로시티·갯벌 등 지역비교우위 자원의 다양한 해양관광 상품 개발 및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 구축 및 남도소리올림터 건립 등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한 문화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도해 명소화 사업 등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관광 자원화하여 전남형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마. 성장거점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삼포지구는 차 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타당성 확보, 삼호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정부 15개 부처와 협의완료, 구성지구는 간척지 양도양수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다.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부지매입 계약(15개 기관), 청사설계 발주(14개기관), 청사 착공(3개기관)이 추진 중이며, 부지 조성(99%) 및 공동주택 착공(7,421세대) 등 공공기관 이전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도내 1시간대 도로망 구축을 위해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및 이순신대교·목포대교 건설과 연륙·연도교 및 국도·지방도 건설 등 접근성이 제고 되고 있다.

## **바. 더불어사는 행복공동체 조성**

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 자활근로 사업 등 내실있는 취약계층 보호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직업훈련 및 2012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등 여성능력개발 및 통합의료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이 걱정없이 마음껏 미래를 꿈꾸고, 다문화·한부모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맑은 물·깨끗한 공기·오염되지 않은 땅 등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 **사. 소통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

주민참여 예산제 및 도민 제안 등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실천 분위기 조성 등 도민의식 함양과 범도민 친절운동으로 훈훈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도 산하 전 공무원의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개인별 업무성과 평가의 객관성 확보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예방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